

How to Be a Grown Up

An adult refers to a “fully grown” person. Being an adult means taking heavy responsibilities. The youth, who experienced freedom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are just like a boat pitching and tossing in the storm. We have met young artists seeking to comfort the hearts and minds of our youth in this bittersweet world.

editor PARK HYUNJUNG



최지원, "뿔꾸기를 기다리며(Waiting for a Cuckoo)", 2022, Oil on Canvas, 100×80.3cm, ThisWeekendRoom 제공



화가 최지원



최지원, '블라인드 안에서(Stuck in the Blinds)', 2022, Oil on Canvas, 145.5×227.3cm, ThisWeekendRoom 제공



최지원, '말벌의 죽음(The Death of Wasps)', 2022, Oil on Canvas, 162.2×130.3cm, ThisWeekendRoom 제공

화가 최지원의 단단하게 피어나는 블루

이태원 엔티크 골목을 지나다 보면 작은 도자기 인형을 마주하고는 한다. 정교한 도자기 소녀들은 푸른빛 광택이 감도는 하얀 피부에 미소를 지을 듯 말 듯 미묘한 표정을 띠고 있다. 완벽해 보이는 이 인형에게 영혼이 있다면 무슨 색일까? 1996년생 회화 작가 최지원은 최근 미술계의 주목을 받는 신진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도자기 인형이 지닌 매끄러운 표면과 물성에 매료되어 2019년부터 도자기 인형을 그렸다. 최지원의 그림 속 인형은 손을 대면 미끄러질 것처럼 매끄럽고 단단할 것 같지만 그들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다. “우리 삶 속에서 양면적 양태를 자주 목격하면서 도자기 인형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표면은 최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티프다.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은 완벽하지만, 이면에 공허한 감정이 자리한다는 의미에서 보여주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대상을 관찰할 때 거너리에서 대상의 촉각적 표면을 두 눈으로 흡수하듯 바라봐요. 마치 3D 스캔을 하듯이 말이예요. 이는 제가 붓질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회화적 욕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림 속 도자기 인형은 무표정하다.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창백한 피부와 생기 없는 눈동자, 작은 입술이 일견 단호해 보이기가까지 하다. 외강내유라고 했던가. 단단한 표면 뒤에는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것 같다. “도자기에 영혼이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작업 초반에는 도자기 인형을 영혼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작업에 임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는 영혼이 깃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매끄러운 붓질을 통해 빚어내면 영혼이 생성되는 거죠.” 이제 차갑고 깊은 블루는 최지원의 특징적인 색이 되었다. 채도가 낮지만 강렬한 색을 화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선호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활발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작가는 청춘이야말로 “지열하게 개인의 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두 차례의 단체전을 치른 그는 올해 또 한 번 도약한다. 최지원은 3월 3일 디스위켄드룸 ThisWeekendRoom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아트페어와 베를린, 상하이 등에서 그룹전을 개최할 예정이다.